광주시, 유휴공간·물품·재능 나누는 공유사업 추진

공유단체·기업 3곳 지정, 공유촉진사업비 지원단체 9곳도
주민밀착형 사업·공유교육·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등 제공

광주시가 유휴공간과 물품, 각종 재능 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유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휴공간, 물품, 각종 재능 등의 자원을 공유해 사회(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유경제 촉진, 시민의 자발적 공유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유촉진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공모 접수 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기업 3곳을 지정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단체 9곳의 지원 사업도 선정했다.

올해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된 3곳은 빛나는 발산 협동조합, 수페그린 협동조합,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다.

시는 또 수페그린 협동조합, 쓰담쓰담 예술나눔, 세대소통놀이문화교육공동체 통, 첨단1동주민자치회, 화정3동주민자치위원회, 지원1동마을사랑채운영협의체, 학동주민자치회, 공하나협동조합, 산수1동새마을부녀회 등 9곳을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단체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단체·기업은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광주시 지정 공유단체·기업으로 인증하고, 3년 동안 공유광주 로고 사용권, 광주시 공유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각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공유활성화 관련 자유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등 주민생활밀착 공유사업 ▲공유부엌사업 ▲청소년 대상 공유교육 및 캠페인 ▲경제, 사회, 환경 등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지역 공유단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유단체·기업을 공식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0개 공유단체·기업에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또 2016년부터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남구 진월동에 '광주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공유, 재능공유 등 다양한 공유 관련 사업과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원석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회복하고 공유문화가 광주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공하나협동조합, 동구행복나눔봉사단 등에는 표창패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황룡강 생태공원 봄꽃 감상 휴일인 29일 장성 황룡강 생태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길동무 꽃길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갖가지 봄꽃들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대상'
전남 친환경쌀, 16년 연속 선정

전남도가 최근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4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서 전남 쌀이 16년 연속 선정됐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브랜드 품질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0개 부문을 선정했다.

선정위는 전남이 전국 최대 친환경 쌀 생산지이고, 전남 친환경 쌀 1만400t이 전국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등 소비자가 믿고 찾는 명품 쌀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16년 연속 수상의 배경에는 전남도와 시·군, 농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합심해 쌀을 수확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매년 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봄철 영농기 농촌일손돕기
전남도, 공직자·농협 등 참여

전남도가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작물의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공직자 등이 나서 농촌일손을 돕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도 본청과 사업소를 비롯해 시·군 등의 모든 공직자가 5~6월 중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공무원 등 1002명이 참여해 고추 모종 심기, 배 솎기, 녹찻잎 수확 등 55ha 면적의 작업을 지원했다.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철을 맞아 보다 활발한 돕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Viva! 청춘' 주제 매주 토요일
공연·체험·플리마켓 등 청년 중심

광주시가 시민복합문화공간 전일빌딩245에서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부제 '다시 꽃으로 피어')을 6월부터는 'Viva!,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6월 4일부터 진행하는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광주와 타지역 아티스트의 교류 공연인 지역교류 음악회 '우리' ▲매월 전일빌딩245 일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주제가 있는 '브랜드 공연-바라는 바다' ▲무성영화에 맞춰 즉흥연주를 펼치는 '플레이 위드 무비' ▲피크닉 존과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하는 플리마켓 '열정의 백미' ▲유아 및 초등생 동반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명랑 가족 아트 놀이터 '하하호호' ▲전일빌딩245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일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주말 문화 놀이터', '연결된 지점-오늘의 문화' ▲지역 작가와 협업해 진행하는 현대미술 교육 프로그램 '아트 그린' 등이다. 또 '내 생에 첫 전시',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트마켓 '작가장터 245'도 마련한다.

'다시 꽃으로 피어'의 공연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은 관련 공식 인스타그램(@jeonil_building_245_) 또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il245_)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해남~대흥사 확포장 2단계 상반기 착공

전남도가 서남부권 발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1단계에 이어 2단계 구간을 올 상반기 신규로 착공한다.

지난해 7월 착공한 1단계는 지방도 806호선으로 해남읍 읍내리에서 연동리까지 1.4㎞에 대해 104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는 해남읍 연동리에서 삼산면 평활리까지 3.7㎞를 39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이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 대흥사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두륜산도립공원을 오가는 주요 도로다. 성수기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기존 2차로의 4차로 확장이 절실했다.

서남부권 중심인 해남 일대에는 해남~대흥사 간 이외에도 북평~북일 간(5.9㎞)과 목포 구등대~양화 간 지방도(2.6㎞)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영암해남기업도시와 화원관광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산~산이 간 13㎞, 화원~장수 간 2.6㎞의 지방도도 확포장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어 앞으로 해남이 서남권 교통중심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에 착공하는 지방도사업은 전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코로나로 침체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2년 만에 조직과 운영 규정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사회서비스원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절차라는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에서, 이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로 변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